

질 좋은 지역특화 수산식품 육성

군산시, 2023년도 조직개편 따른 '수산식품정책과' 신설

군산시가 안전하고 질 좋은 지역특화 수산식품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수산식품정책과 신설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안전하고 질 좋은 군산시 지역특화 수산식품 육성을 위해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수산식품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식품기업 인프라 확충, △지역특화 수산식품 육성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소비 확대, △시장개척 및 전후방 산업연계의 4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내 약 8만평 규모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

공 종합단지'를 본격 조성하고 있다. 전체부지 중 약 1만평에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28억원 등 총 430억원이 투자되는 '스마트가공단지'는 수산식품R&D연구소, 아파트형 가공공장,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지원센터 등이 건립돼 미래 스마트 수산식품 가공주도 컨트론타워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만 평 중 7만평에 달하는 민간사업부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C10 식품 제조업(수산물 가공 및 처리)업종, 해수(海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희망 업체 수요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저온 유통 체계(10℃이하)구축을 위해 비응향에 총사업비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홍어 대구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수산물 신상품 및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수산물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지역생산자 유통 및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향후 특화거리 조성·확대 및 개발된 가공품을 통한 학교급식 연계 방안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4월 말 신축개장을 앞두고있는 수산물종합센터는 현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 중이며 기존 견어매장과 함께 11개 점포가 입점해 영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 시 수산식품산업의 단계적 진흥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새만금 수산식품산업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민·관·소통 및 협력을 추진하여 수산물이 로컬푸드 체인 연계 지역순환경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기자



익산시의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을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쳤다.

봄에는 익산여행 어떠세요

호남고속도로서 '2023 익산방문의 해' 홍보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을 직접 찾아가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교통요충지 익산의 장점을 살려 17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에서 봄맞이 여행객을 겨냥해 익산 대표 볼 관광지와 행사를 알렸으며, 특히 최근 인기 높은 '글로벌문화관'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휴게소 방문객들에게 익산의 대표적인 인스타 성지인 아가페정원에 활짝 필 체송화, 영산홍 철쭉 등 봄꽃 소식을 전했다. 사진 자료를 통해 유럽식 정원인 포말가든, 쪽 뿔은 메타세쿼이아까지 인생샷맛집임을 강조했다.

상춘객들은 봄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높았다. 국내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익산문화제(4.7.~4.9.)과 익산보석대축제(4.5.~4.16.) 정보를 적극 전달했다.

또 익산 벚꽃명소도 함께 홍보했다. 익산문화제이행이 진행되는 왕궁리유

적은 왕궁리 오층석탑과 함께 흐드러지는 벚꽃나무를 볼 수 있으며, 만경강으로 꽃놀이를 간다면 만경강문화관 산책코스, 자전거길까지 여러 코스로 꽃내음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최초로 세워진 세계문화 전시·체험 공간 '익산글로벌문화관'(https://globaliksan.go.kr)을 적극 알렸다.

다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 전시 관람은 물론 전통의상체험, 악기 체험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현장학습 패키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행다나기에 가장 좋은 봄날에 익산여행 오셔서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란다"며, "2023 익산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봄맞이 여행시즌을 앞두고 더욱더 다채로운 문화행사 와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보건소, 'HOHO 건강일터' 사업장 모집

군산시 보건소는 3050세대의 주 생활터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OHO 건강일터' 사업 대상 사업장 모집을 시작했다.

'HOHO 건강일터' 사업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생활 실천율 및 걷기 실천율은 낮고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은 30~50대의 주요 생활공간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가지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으로 첫째 50인 이상의 사업장인가, 둘째 프로그램 진행 가능한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자의 실천의지가 확실한가, 셋째 활동 우수자에게 사업장 내 인센티브(특별휴가 등) 제공 가능한가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군산=이재훈기자

군산시의회, 의회 홍보 시민기자단 모집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의회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시의회 시민기자단은 군산시의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7월 발간예정인 의회소식지에도 취재·제작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기자단 모집분야로는 △일반 △이미지제작 △영상제작 등으로 현장 취재 등 정책홍보, 의정홍보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업무를 맡게 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사 및 사진 영상 제공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지원자격은 군산시의회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일반 등 15명 정도로 글쓰기 및 사진 영상 편집 등에 능숙하고, SNS 방문자와 인맥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군산=이재훈기자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징수 고삐 바짝 죄다

익산시, 체납자 2만6000명 · 185억원 10만5000건 체납 독려

익산시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에 징수에 돌입했다.

시는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자 3만여명에게 체납세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총 체납금액은 185억원이며 체납 건수는 10만5,000건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생계형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4,043

명이며 총 체납액은 7,720건에 89억400만원이다.

일백만원 이하의 소액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발송하였으며 일백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대해서는 매월 단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고지서는 스마트택스 또는 금융기관, 네이버, 카카오 등 앱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체납 징수 고삐를 바짝 조여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저소득 중장년층 자립 공동일터 '익산이로움' 개관

익산시가 공동일터 경제활동 인프라를 구축해 저소득 중장년층의 취업 문을 활짝 열었다.

시는 20일 저소득 중장년층의 자립·자립을 위한 공동일터인 '익산이로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시의회 최중오 의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와 자활사업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40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익산이로움'은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목천동 일원(신광1길 4-11)에 부



지 6,277㎡ 및 연면적 683.35㎡,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HACCP 시설 공동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포장실 등을 갖추어 자활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잔여부지에서는 썬채소

등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시는 '익산이로움' 개관으로 자활생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나섰다.

이번 건립으로 단순 공동생산환경 조성을 넘어 믿을 수 있는 유기농산물 원재료부터 HACCP인증 제품 생산까지 한 자리에 이뤄져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상생형 자활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제출 접수

익산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8,522필지에 대한 대상자에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 · 지방세 ·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각종 인 · 허가 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형상, 도로 이용 상황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 후 ㎡당 가격으로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익산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종합민원실, 각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